

B-2. 강제 맹출술(Forced eruption)을 이용한 다양한 임상 증례

변유경, 김태일, 설양조, 구 영, 류인철, 정종평,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치관 파절이나 우식에 의해 상실된 부분을 수복하기 위해 외과적인 임상 치관 연장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복물 변연의 적절한 위치를 위해 건강한 치질을 노출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임상치관을 길게 하여 유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치조골정과 수복물의 변연 사이에 필요한 생물학적 폭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과적 술식은 치은을 근단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치은 변연부의 위치가 인접 치아의 치은변연부 위치와 달라져서 심미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또한 생물학적 폭경을 얻기 위하여 인접치아의 치조골을 포함한 치조골 성형을 해야 하므로 임상치관과 치근의 비율이 불리하게 되는 단점도 가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적으로 치아를 맹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치아를 강제적으로 맹출시키면 치은 섬유와 치주인대 섬유가 장력을 받아 치은과 치조골이 치관 쪽으로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때 치은 변연부는 치관쪽으로 이동하지만 치은치조점막경계는 이동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부착치은의 폭경이 증가하고 치조골의 높이가 증가하게 된다. 그 후 이차적인 수술을 통해 치은과 치조골을 필요한 만큼 외과적으로 절제하여 치은 변연부의 높이를 인접치아와 조화롭게 하며 적절한 치관의 길이도 얻게 된다.

요즘 이런 강제 맹출술을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치아에 발치 전 시행하여 임플란트 식립시 예상되는 치조골 결손부의 제거 및 형태 개선을 도모하고 연조직의 양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방법 및 재료

두 명의 환자에서 보철 전 임상치관연장을 위해 강제 맹출술을 시행하고 외과적으로 치조골 및 치은 성형을 시행하였으며 한 명의 환자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 hopeless teeth를 교정적으로 맹출시키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보철치료를 위한 임상증례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아 맹출이 가능하였고 심미적으로 양호한 치은의형을 얻을 수 있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맹출술을 시행한 경우 골유도 재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였다.

결론

상악전치부에서 외과적 치관연장술 대신 강제 맹출술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술식을 이용하여 외과적 처치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